**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1/월리스 해플린 2세**

****

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1

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.

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

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

 사용하시는 가장 흔한 방식이다.

 하나님은 영이시다.

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화려한 겉모습이나,

 외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.

 그리고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기를 즐겨하신다.

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.

 물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는 없다.

 왜냐하면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.

 그것은 영혼의 대화이기 때문이다.

 음성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.

 우리가 전에 몰랐던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자.

그런데 그 깨달음이 너무 확실해서

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자.

 그렇다면, 그 깨달음은

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가 된다.

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

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

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음성을 혼동하고,

 다른 영적인 영향력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.

 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?

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교류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계시다.

그것은 바로 영과 영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다.

(월리스 해플린2세의"하나님의 일곱 가지 목소리"중에서)